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전통시장 연계 관광 홍보 '눈길'

우정연 기자 | 승인 2026.08.21 10:26

메밀로드마켓서 광천선굴·치유의숲 홍보…체험으로 전통시장 방문도 유도

'2026 별별상상 평창로드마켓-메밀로드마켓'과 연계해 평창읍 전통시장 아케이드 일원에서 관광 홍보부스 운영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전통시장과 관광시설을 연계한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관광객의 시장 방문과 지역 소비를 이끌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13~15일 '2026 별별상상 평창로드마켓-메밀로드마켓'과 연계해 평창읍 전통시장 아케이드 일원에서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평창관광문화재단, 평창전통시장상인회 등과 협력한 이번 행사에서는 광천선굴과 치유의숲 등 공단 관광시설과 평창 5일장, 전통시장 점포, 먹거리·편의정보 등을 함께 알렸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종이 모형에 소원을 적어 전시하는 '소원 박쥐 만들기'와 솔방울을 활용한 친환경 '솔방울 박쥐 만들기', 동굴 물방울·반향음 등을 체험하는 '12℃ 광천선굴 속으로' 등을 진행했다. AI 광천선굴 해설 영상과 기념품도 선보였다.

첫날에는 평창관광문화재단 공식 관광 서포터즈 '평창로그'가 현장을 취재하고 SNS 홍보에 나섰으며 전통시장 점포·5일장 정보를 안내해 방문객의 시장 방문과 소비를 유도했다.

특히 광복절이자 평창 5일장이 열린 15일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박쥐 만들기에 참여하고 완성한 소원 박쥐를 부스에 전시하며 체험공간을 함께 꾸몄다.

최순철 이사장은 "관광시설 소개를 넘어 방문객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연결한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체험형 홍보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